

# 구약논단

제 15권 3호(통권 33집) 2009년 9월 30일

김 래용(협성대) 시편 78편의 양식비평적 분석: 구조, 장르, 삶의 자리, 의도 .....	29
최종형태의 본문의 구조분석을 해석의 출발로 하는 개정된 양식비평을 통해 시편 78편의 본문의 구조, 장르, 삶의 자리 및 의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이 시편에서 예브라임의 버림과 유다와 다윗의 백함을 강조하는 것은 기원전 4-3세기의 사마리아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 사이의 합법화 논쟁이 절정에 달했던 삶의 정황에서 기인된 것이다.	
Kim, Rae-Yong Form-Critical Analysis of Psalm 78 .....	29

---

# 시 78편의 양식 비평적 분석: 구조, 장르, 삶의 자리, 의도

---

김 래용 | 협성대

## 1. 서론

지난 1세기 동안 시 78편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sup>1)</sup>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 시 78편의 구조와 장르와 삶의 자리와 의도에 대한 견해는 일치를 보이지 못했다. 먼저 구조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이 시를 두 부분에서 아홉 부분까지 나누었다.<sup>2)</sup> 양식에 있어서도 이들은 이 시를 ‘지혜 시,’ ‘역사 시,’ ‘지혜 서

---

1) 시 78편의 자세한 연구사를 위하여 C. E. McLain, “An Investigation of Psalm 78 as Political Accession Justification for the Davidic Dynasty,”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6), 6-41쪽을 참조하라.

2) 캠프벨(A. F. Campbell, “Psalm 78: A Contribution to the Theology of Tenth Century Israel,” *CBQ* 41 [1979], 59-60쪽)은 이 시편을 두 부분(1-8절, 9-72절); 히버트(P. S. Hiebert, “Psalm 78: Its Place in Israelite Literature and History,” [T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92], 197쪽)는 이 시편을 세 부분(1-8절, 9-64절, 65-72절); 림버그(J. Limburg, *Psalm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266쪽)는 이 시편을 네 부분(1-4절, 5-11절, 12-66절, 67-72절); 김 정우(「시편주석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7], 554-557쪽)는 이 시편을 다섯 부분(1-11절, 12-31절, 32-39절, 40-55절, 56-72절); 크라우스(H.-J. Kraus, *Psalms 60-150*, trans. H.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1989], 123쪽)는 이 시편을 여섯 부분(1-11절, 12-31절, 32-41절, 42-53절, 54-64절, 65-72절); 궁켈(H. Gunkel, *Die Psalmen* [HKAT 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341쪽)은 이 시편을 아홉 부분(1-11절, 12-16절, 17-31절, 32-39절, 40-51절, 52-55절, 56-58절, 59-64절, 65-72절)으로 나눈다.

문을 가진 찬양시,'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들이 뒤섞인 '합성 시'로 보았다.<sup>3)</sup> 또한 이들은 이 시의 연대와 삶의 자리를 기원전 10세기로부터 포로기 이후까지로 아주 넓고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시의 의도를 각각 다르게 주장하였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시 78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부분적인 내용이나 구조, 그리고 몇몇 표현들이나 단어들에 의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실제로 시의 본문들은 영성한 편집물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잘 짜여진 본문이기에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속에서 편집의 통일성과 메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6)</sup>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최종 형태 본문의 구조 분석을 해석의 출발로 삼는 새로운/개정된 양식 비평을 적용하고자 한다.<sup>7)</sup> 이 방법론은 1968

3) H. Gunkel, *윳글*, 342쪽; H.-J. Kraus, *윳글*, 122쪽; R. J. Clifford, "In Zion and David a New Beginning: An Interpretation of Psalm 78," B. Halpern & J. D. Levenson (eds.), *Traditions in Transformation: Turning Points in Biblical Faith*,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1), 125-126쪽; 김 정우, *윳글*, 549-550쪽.

4) 아이스펠트(O. Eissfeldt), 캠펬른 '기원전 10세기'를 시편 78편의 삶의 자리로 보며, 클리포드(R. J. Clifford), 정커(H. Junker), 다후드(M. Dahood), 바이저(A. Weiser), 데이(J. Day), 히버트, 스텐(P. Stern), 레오라르드(J. M. Leonard)은 '분열왕국 시대'를 이 시의 삶의 자리로 보고, 궁켈, 외스터레이(W. O. E. Oesterley), 크라우스, 카긴스(R. J. Coggins), 카롤(R. P. Carroll), 앤더슨(A. A. Anderson)은 이 시의 삶의 자리를 '포로기 이후'로 본다. 이들의 주장을 위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O. Eissfeldt, "Das Lied Moses Deuteronomium 32:1-43 und das Lehrgedicht Asaphs Psalm 78 samt einer Analyse der Umgebung des Mose-Liedes,"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r Säch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Leipzig*, (Berlin: Akademie, 1958), 34-37쪽; A. F. Campbell, *윳글*, 51-59쪽; R. J. Clifford, *윳글*, 125쪽; H. Junker, "Die Entstehungszeit des Ps. 78 und des Deuteronomiums," *Biblica* 34 (1953), 487-500쪽; M. Dahood, *Psalms II: 51-100* (AB 17),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68), 238쪽; A. Weiser, *The Psalms* (OTL), trans. H. Hartwe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540쪽; J. Day, "Pre-Deuteronomic Allusions to the Covenant in Hosea and Psalm LXXVIII," *VT* 36 (1986), 11쪽; P. S. Hiebert, *윳글*, 210쪽; P. Stern, "The Eighth Century Dating of Psalm 78 Re-argued," *HUCA* 66 (1995), 56-60쪽; J. M. Leonard, "Identifying Inner-Biblical Allusions: Psalm 78 as a Test Case," *JBL* 127 (2008), 260쪽; H. Gunkel, *윳글*, 342쪽; W. O. E. Oesterley, *The Psalms*,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39), 359쪽; H.-J. Kraus, *윳글*, 123쪽; R. J. Coggins, *Samaritans and Jews: The Origins of Samaritanism Reconsidered*,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77-78쪽; R. P. Carroll, "Psalm LXXVIII: Vestiges of a Tribal Polemic," *VT* 21 (1971), 147쪽; A. A. Anderson, *Psalms (73-150)* (NC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 Co., 1972), 564쪽.

5) 이를 위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본문의 삶의 자리"를 보라.

6) 왕 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5), 111-114쪽과 139-143쪽을 보라.

년 물렌버그(J. Muilenburg)가 SBL 연설에서 양식 비평의 한계를 지적한 이후로 리히터(W. Richter)와 크니림(R. Knierim)을 거쳐 스위니(M. A. Sweeney)에 의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이래로 FOTL(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주석 시리즈에 적용되고 있다.<sup>8)</sup> 특별히 현재 크니림과 함께 이 주석 시리즈의 편집자로 있는 스위니는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텍스트의 전체적인 언어적 외형에 나타나는 언어의 패턴들과 이러한 패턴들이 텍스트에 형태와 표현을 주는 데 행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9)</sup> 따라서 이 연구는 시 78편을 완전한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 이해하고 텍스트의 전체적인 구조 분석과 구문론(syntax)적 분석을 통해 최종 편집자/저자가 어떠한 구조와 장르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삶의 정황과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를 살피려 한다.<sup>10)</sup>

## 2. 양식 비평적 분석

### 1) 본문의 구조

I. 서론	1-8
A. 표제	1a $\alpha$ -a $\beta$ 1
B. 서론	1a $\beta$ 2-8
1. 주의를 환기시킴	1a $\beta$ 2-b

7) 왕 대일은 1970년대 초반에 기존의 양식 비평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형태의 양식 비평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양식 비평은 최종적으로 형성된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제를 연구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양식 비평과 새로운 양식 비평의 차이를 위해, 왕 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5), 175-185쪽을 보라. 또한 정 석규, 「구조로 읽는 구약성서: 구조분석 방법과 실제」(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김 래용, “스 3장 1절 - 4장 5절의 양식비평적 분석,” 「구약논단」 제29집(2008년 9월), 88-108쪽을 참조하라.

8) 이들의 주장을 위하여, J. Muilenburg,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 (1969), 1-18쪽; W. Richter, *Exegese als Literaturwissenschaft: Entwurfeiner alttestamentlichen Literaturtheorie und Method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R. Knierim, “Old Testament Form Criticism Reconsidered,” *Interpretation* 27 (1973), 433-468쪽; M. A. Sweeney, “Form Criticism,” S. L. McKenzie and S. R. Haynes (eds.),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 and Their Applic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58-89쪽; 김 래용, 「에스라서 연구: 새로운 양식비평적 분석」(서울: 황소와 소나무, 2008), 11-23쪽을 참조하라.

9) M. A. Sweeney, *윗글*, 68-69쪽.

10) 스위니는 새로운/개정된 양식 비평은 네 개의 기초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인 형태, 장르, 삶의 자리, 의도를 텍스트의 해석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첫 번째 진술	2-3
3. 두 번째 진술	4
4. 세 번째 진술	5-8
a. 야훼의 명령	5a
1) 첫 번째 이유	5b
2) 두 번째 이유	6
3) 세 번째 이유	7
4) 네 번째 이유	8
II. 에브라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9-58
A. 에브라임의 불순종	9-11
1. 전쟁에서 패함	9
2. 하나님의 계약을 어김	10
3. 에브라임이 잊어버린 것들	11
a. 하나님이 행한 것들	11a
b.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들	11b
B. 에브라임의 불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예	12-58
1. 첫 번째 진술	12-22
a. 하나님의 역사	12-16
b. 에브라임의 불순종	17-20
c. 첨가된 진술	21-22
1) 야훼의 결단	21
2) 에브라임의 불순종	22
2. 두 번째 진술	23-32
a. 하나님의 은혜	23-29
b. 에브라임의 불순종	30a
c. 첨가된 진술	30b-32
1) 하나님의 진노	30b-31
2) 에브라임의 불순종	32
3. 세 번째 진술	33-37
a. 하나님의 진노	33
b. 에브라임의 불순종	34-37
4. 네 번째 진술	38-58
a. 하나님의 은혜	38-39
b. 에브라임의 불순종	40-43
c. 첨가된 진술	44-58
1) 하나님의 역사	44-55

2) 에브라임의 불순종	56-58
III. 새로운 결단	59-72
A. 하나님의 결단	59-64
1. 이스라엘과 실로와 그의 소유를 버림	59-62
2. 네 종류의 사람들을 버림	63-64
B. 주님의 결단	65-72
1.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버림	65-67
2. 유다 지파와 시온 산과 다윗을 선택	68-70
3. 다윗의 선택 이유와 결론	71-72

시 78편은 세 개의 대문단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대문단(1-8절)은 이 시의 서론으로, 이 시의 표제와 화자와 청중과 목적을 포함한다. 두 번째 대문단(9-58절)은 에브라임 선조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진노를 다룬다. 세 번째 대문단(59-72절)은 에브라임 선조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과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대신 유다 지파와 시온 산과 다윗을 선택했음을 말한다.

이 시의 첫 번째 대문단의 첫 번째 소문단(1a $\alpha$ -a $\beta$ 1절)은 이 시의 표제로 מַשְׁכִּיל לְאַסָּף(마스킬 레아사프/아삽의 마스킬)를 포함한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표제가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생각한다.<sup>11)</sup> 두 번째 소문단(1a $\beta$ 2-8절)은 이 시편의 본격적인 서론으로 이 시편의 화자와 청중과 목적에 대해 소개한다.

이 두 번째 소문단의 첫 번째 대단위(1a $\beta$ 2-b절)는 교훈 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구 הֲאִזְנִינָה עָמִי(하아찌나 암미/들어라 나의 백성들아)로 시작하면서,<sup>12)</sup> 두 개의 히필 명령형 동사 הֲאִזְנִינָה와 הוֹטֵט(하트투/기울여라)를 통해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여기에서 화자는 특별히 청중을 “나의 백성”(עָמִי)으로, 그의 교훈의 내용을 “나의 토라”(וְתוֹרָתִי 토라티)로 표현한다.<sup>13)</sup> 두 번째 대단위(2-3절)는 두 개의 권유명령형

11) 표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K. Seybold, *Introducing the Psalms*, trans. R. G. Dunphy, (Edinburgh: T & T Clark, 1990), 34-39쪽; 김 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79-84쪽; 김 이근, 「시편 I (성서주석, 1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3-37쪽을 보라.

12) A. F. Campbell, *윳글*, 63쪽.

13) 사 51장 7절, 렘 9장 12절, 16장 11절, 31장 33절, 호 8장 1절, 시 89편 30절 등에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 때에 주어는 야훼이다. H.-J. Kraus, *윳글*, 125쪽을 참조하라.

(Kohortativ 단수) אֶפְתָּח(에프테하/나는 [나의 입을] 열 것이다)와 אֶבְרָמָה(압비아/나는 말할 것이다)를 통해 교훈을 전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강조한다.<sup>14)</sup> 여기에서 1인칭 단수(2절)가 1인칭 복수(3절)로 바뀌면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청중과 동일시한다. 세 번째 대단위(4절)는 화자의 두 번째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화자는 후손들에게 숨기지 않고(4aα절) 야훼의 영광스러운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할 것을 다짐한다(4aβ-b절). 네 번째 대단위(5-8절)는 야훼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정하신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한다. 특별히 이 대단위는 야훼를 주어로 하는 좌우-연결형 3인칭 단수형 동사 אָמַן(와이아켄/그는 세웠다)으로 시작하며, 5b절부터 나타나는 네 가지 이유들의 주어를 3인칭 복수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 번이나 등장하는 부정어 אֵל(로/아닌)은 선조들의 불순종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된다.

이 시의 두 번째 대문단(9-58절)은 에브라임의 불순종과 에브라임 선조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네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술한다. 이 대문단은 두 개의 소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소문단(9-11절)은 에브라임의 불순종을 다룬다. 이 소문단은 3인칭 복수로 표현된 אֶבְרָמָה אֶבְרָהִים(브네-에프라임/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주어로 하며 이들의 충성스럽지 못한 행위들을 세 개의 복수형 동사들을 사용하여 나타낸다.<sup>15)</sup> 이런 것을 통해 최종 편집자/저자는 야훼께 불충한 대표적인 사례로 에브라임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소문단(12-58절)은 에브라임 선조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이 시의 저자는 에브라임 자손들의 불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출애굽 당시 불평했던 자들을 에브라임 자손들의 선조들과 동일시한다.<sup>16)</sup> 두 번째 소문단은 다시 여러 개의 대단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대단위(12-22절)는 하나님의 역사와 에브라임 선조들의 불순

14) 코호르티브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한 동구, 「신경향 히브리어 문법」(서울: 도서출판 B&A, 2008), 70-71쪽, 227-228쪽을 참조하라.

15) אֶבְרָהִים(하프쿠/그들은 물러났다), אֶבְרָהִים אֵל(로 사메루/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אֶבְרָהִים(와이이스케 후/그들은 잊었다)

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이 논문의 “삶의 자리”를 보라.

종에 대하여 언급한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는 첫 번째 소단위(12-16절)는 אֱלֹהֵינוּ רָאָה(네게드 아보탐/그들의 선조들 앞에서)으로 시작하는데, 앞의 문맥을 고려할 때 אֱלֹהֵינוּ는 바로 “에브라임 선조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에브라임 자손들의 선조들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에서 여섯 개의 히필 와우-연결형 남성 단수 동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다.<sup>17)</sup> 두 번째 소단위(17-20절)는 에브라임 선조들의 불순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 소단위는 두 개의 와우-연결형 동사들 + 부정사 구문들(17, 18절)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묻는 의문사를 가진 두 개의 문장에 의해 지배된다.<sup>18)</sup>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저자는 에브라임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를 취했는지를 강조한다. 세 번째 소단위(21-22절)는 야훼의 결단과 에브라임 선조들의 불순종을 기술한다. 특히 앞의 단위들과는 달리 이 소단위는 3인칭 남성 단수 대신에 אֲנִי(야훼)를 주어로 사용함으로써, 에브라임 선조들의 죄로 인해 야훼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두 번째 대단위(23-32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에브라임 선조들의 불순종을 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대단위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이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에브라임의 불순종에 대해 언급한 후에 첨가적인 진술을 더한다. 이 대단위의 첫 번째 소단위(23-29절)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선조들에게 만나와 고기를 주신 사건을 언급한다. 이 소단위는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와우-연결형 동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23-24절), אִישׁ(이쉬/사람)를 주어로 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을 말한다(25절). 두 번째는 한 개의 당위명령형(Jussiv) 동사와 세 개의 와우-연결형 동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26-28절), 이어서 3인칭 복수를 주어로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을 말한다(29절). 두 번

17) אֵינִי מְבַרְכִים(와이아아비렘/그는 그들을 지나가게 했다), אֵינִי מְבַרְכִים(와이앗째브-마임/그는 물을 서게 했다), אֵינִי מְבַרְכִים(와이안렘/그는 그들을 인도했다), אֵינִי מְבַרְכִים(와이아세크/그는 마시게 했다), אֵינִי מְבַרְכִים(와이요짜/그는 [물이 흘러]나오게 했다), אֵינִי מְבַרְכִים(와이요레드/그는 [물이 흘러]내려가게 했다)

18) 시 78:19 שָׁלוֹן אֵל לְעַרְדָּאֵי הַיּוֹכָל(하이우칼 엘 리아로크 술한/하나님이 식탁을 베풀 수 있는가?), 20절, מַה יִּזְכֹּר לְהַגִּים(하감-레헬 유칼 테트/또한 그가 빵을 줄 수 있는가?).



째 소단위(30a절)는 만나와 고기를 통해 은혜를 입은 에브라임 선조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어 **אֵל**와 부사 **עַד**(오드/여전히)를 사용한다. 세 번째 소단위(30b-32절)는 앞의 소단위들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진노와 에브라임의 불순종에 대해 언급한다. 이 소단위는 에브라임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말한다.

세 번째 대단위(33-37절)는 하나님의 진노와 에브라임 선조들의 회개와 불순종에 대해 진술한다. 이 대단위는 앞의 대단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33-34a절) 다음에 에브라임 선조들의 불순종(36-37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회개(34b-35절)를 다룬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저자는 에브라임 선조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을 강조한다.

네 번째 대단위(38-58절)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에브라임 선조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을 비교한다. 이 대단위의 첫 번째 소단위(38-39절)는 에브라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특별히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אֵל** **הוּ**(후/그는)로 시작하면서, 이 소단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두 번째 소단위(40-43절)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에브라임 선조들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כַּמָּה**( כמה/얼마나)로 시작한다.<sup>19)</sup> 이어서 **הוּ** **רָחַם**(야므루후/그들은 그를 반역했다), **הוּ** **עָצַב**(아아찌부후/그들은 그를 슬프게 했다), **הוּ** **שָׁבַח**(와이야슈부/그들은 돌이켰다), **הוּ** **נִסָּה**(와예낫수/그들은 시험했다), **הוּ** **נִסָּה**(히트우/그들은 노엽게 했다), **הוּ** **לֵא**(로-자케루/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동사들이 그들의 불순종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동사들은 앞의 소단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들과 의미에 있어서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다. 세 번째 소단위(44-58절)는 12절 이하처럼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에브라임 선조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함을 꾸짖고 있다. 이 소단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44-55절과 에브라임 선조들의 불순종을 다루는 56-58절로 나뉜다.

19) 이 소단위의 42b절과 43절은 11b절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난 때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43절의 내용은 12절의 내용과 비슷하다. A. F. Campbell, *룻*, 55-56쪽을 보라.

먼저 이 소단위의 첫 번째 부분(44-55절)은 3인칭 단수를 주어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소개한다. 이 부분은 와우-연결형 동사들에 의해 지배되며, 이런 동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하나하나 설명된다. 먼저 44-48절은 피, 쇠파리 떼, 개구리, 황충, 메뚜기, 우박, 서리, 번개를 통해 이집트 사람과 가축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음을 말한다. 49-50절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 전염병 등을 이집트인들에게 주었음을 말하며, 51절은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 말한다. 52-55절은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선조들을 인도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은 56절 이후에 진술될 에브라임 선조들의 반역과 잘 비교가 된다. 두 번째 부분(56-58절)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는 에브라임 선조들에 대해 진술한다. 이 부분은 아주 독특한 동사 배열을 가지고 있다. 56절과 57절에서는 연속으로 두 개의 와우-연결형 동사들이 나타나며, 이것을 하나의 동사가 뒤따르고, 58절에는 하나의 와우-연결형 동사와 하나의 동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동사들을 통해 에브라임 선조들의 반역이 자세하게 설명된다. 특히 57절에 나타나는 **קָיָהוּבְרָאִים**(카아보담/그의 선조들처럼)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선조들과 동일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편의 세 번째 대문단(59-72절)은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을 기술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주어가 3인칭 복수에서 3인칭 단수, **יְהוָה**(엘로힘/하나님)으로 바뀐다. 먼저 **יְהוָה**를 주어로 하는 첫 번째 소문단(59-6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실로와 그의 소유물을 버렸다고 말하며, **יְהוָה**(아도나이/주님)를 주어로 하는 두 번째 소문단(65-72절)은 주님께서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유다 지파와 시온 산과 그의 종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יְהוָה**를 주어로 하는 첫 번째 소문단은 두 개의 대단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대단위(59-62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실로의 성막을 버렸음을 언급하기 위해 다섯 개의 와우-연결형 동사들을 사용한다.<sup>20)</sup> 두 번째 대단위(63-64절)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네

20) **וַיִּטְוֶהוּ**(와이이트아바르/그는 화냈다), **וַיִּמְצָאוּ**(와이이므아스/그는 거절했다), **וַיִּשְׁטֹף**(와이잇토쉬/그는 거절했다), **וַיִּתֵּן**(와이이텐/그는 넘겨줬다), **וַיִּסְגֶּר**(와이아스게르/그는 [그의 백성을 칼에] 넘겼다).

종류의 사람들(청년, 처녀, 제사장, 과부)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동사들과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실로의 버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소문단(65-72절)은 주어를 **יְהוָה**에서 **יְהוָה**로 바꾸어 다시 한번 그의 행하신 결단에 대해 강조한다. 이 소문단은 세 개의 대단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대단위(65-67절)는 **סָאָס**(마아스/그는 거절했다)와 **בָּחַר**(바하르/그는 선택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의 버림을 말한다. 두 번째 대단위(68-70절)는 유다 지파와 시온 산과 다윗의 선택을 말한다. 여기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אֶת־הַר צִיּוֹן אֲשֶׁר אָהַב**(에트-하르 치이온 아셰르 아헤브/그가 사랑하는 시온 산을, 68절)라는 표현과 **בְּיַד דָּוִד** **וְיָדָה**(다비드 아브도/그의 종 다윗, 70절)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세 번째 대단위(71-72절)는 주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다윗을 택했으며, 다윗이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훌륭히 수행했음을 말한다.<sup>21)</sup>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최종 편집자/저자는 에브라임과 그 선조들의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시온 산과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다.

## 2) 본문의 장르

시 78편은 다양한 장르들을 포함한다.<sup>22)</sup> 특히 궁켈(H. Gunkel)은 이 시에 다양한 장르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것들은 '전설', '찬양', '예언적인 경고', '지혜 시'라고 본다.<sup>23)</sup> 실제로 궁켈이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 시의 여기저기에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시 78편의 최종 편집자/저자는 이 시의 서론에서 이 시가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서술함과 동시에 예언적인 경고 및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언급한다. 따라

21) 프리쉬(A. Frisch, "Ephraim and Treachery, Loyalty and [the House of] David: The Meaning of a Structural Parallel in Psalm 78," VT 59 [2009], 194쪽)는 광야를 지나 안전한 장소까지 백성들을 인도한 목자로서의 야훼의 이미지가 여기에서 다윗에게 투영되었다고 본다.

22) M. D. Goulder, *The Psalms of Asaph and the Pentateuch: Studies in Psalter, III* (JSOTS, 233), (Sheffield: JSOT Press, 1996), 108쪽; M. E. Tate, *Psalms 51-100* (WBC, 20),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284쪽; 김 정우, *윗글* (2007), 549-550쪽을 참조하라.

23) H. Gunkel, *윗글*, 342쪽.

서 최종 편집자/저자는 그의 의도를 위하여 이와 같은 다양한 전승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의 주된 장르는 ‘교훈 시’, 즉 ‘지혜 시’이며,<sup>24)</sup> 이 시에 부수적인 장르들로 ‘역사 시’와 ‘전설’, 그리고 ‘찬양시’와 ‘예언적 경고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3) 본문의 삶의 자리

시 78편의 연대와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다양한 전승들과 내용들이 뒤섞여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전승들과 내용들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서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sup>25)</sup>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특정한 내용과 단어와 구문을 바탕으로 이 시의 연대와 삶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캠벨(A. F. Campbell)은 이 시가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리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택했음을 강조하며,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언급과 다윗 왕조의 분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의 삶의 자리를 기원전 10세기의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sup>26)</sup> 바이저(A. Weiser)는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9절 내용을 사울이 죽임을 당한 길보아 산의 전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통해 왕권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졌는데 바로 이것이 67절 이하에서 언급된 다윗의 택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게다가 그는 성전 파괴의 내용이 이 시편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의 연대를 포로 시대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7)</sup> 스텐(P. Stern)은 9절에 나타난 에브라임의 군사적 패배와 67절에 나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거절을 기원전 722년 에브라임의 파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는 67b절에 언급된 **יְהוָה אֱלֹהֵי שֵׁבַט**(쉐베트 에프라임)을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왕’으로 해석한다.<sup>28)</sup> 다후드(M. Dahood)는 시 78편이 기

24) 교훈 시와 지혜 시를 위하여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FOTL XV),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518쪽과 538쪽을 보라.

25) 이 논문의 ‘각주 4’를 보라.

26) A. F. Campbell, *윗글*, 75-77쪽. 캠벨은 실로의 버림과 예루살렘의 선택에 대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이해해야 하는가가 기원전 10세기의 관심이라고 본다.

27) A. Weiser, *윗글*, 540쪽.

28) P. Stern, *윗글*, 58-60쪽.

원전 922년에 일어난 통일 왕국의 분열로부터 기원전 721년의 앓시리아에 의한 북 왕국의 멸망까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시의 구성 연대를 기원전 922-721년 사이로 본다.<sup>29)</sup>

그러나 위의 학자들과는 달리 히버트(P. S. Hiebert)는 **ת** **א**(에두트/증거, 5절), **הָיָה**(카나/만들다, 54절), **שָׁכַן**(사칸/정착하다, 55절, 60절), **ל** **כֹּהֵן**(게불/언덕, 54절), **מִשְׁכַּנְתִּיו**(미쉬케노타이우/그의 장막들, 28절)와 같은 단어들이 이 시의 고대성을 암시하기에, 이 시의 연대와 삶의 자리를 기원전 8세기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sup>30)</sup> 다후드는 어떤 시도 과거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yqtl 형태의 많은 동사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시 78편에만 14번이나 yqtl 형태의 동사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up>31)</sup> 따라서 그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동사들은 우가릿 시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기에, 이 시에 이렇게 많은 yqtl 형태의 동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시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2)</sup> 크라우스(H.-J. Kraus)는 시온 산과 다윗의 선택이 이 시의 결론과 절정을 이루며, 예루살렘의 제의 전승으로부터 나온 신의 이름 **יְהוָה**(엘리온/지존 하신)의 빈번한 사용(시 78: 17, 35, 56)은 이 시가 신명기 역사적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33)</sup> 게다가 크라우스는 이 시에 나타나는 신명기 역사적 시각과 지혜 시의 결합은 이 시가 포로 시대 이후에 구성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sup>34)</sup>

이처럼 학자들은 부분적인 내용이나 특정한 단어와 구문의 분석을 통해 이 시의 연대와 삶의 자리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성서의 시들은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어퍼

29) M. Dahood, *윳글*, 238쪽.

30) P. S. Hiebert, *윳글*, 210쪽.

31) **עָבַד**(에박카/그는 쫓겼다, 15절), **עָפַח**(앗사/그는 [바람을] 일으켰다, 26절), **בָּא**(아비/그는 주었다, 29절), **כָּפַר**(에칼페르/그는 용서했다, 38절), **תָּשַׁח**(아셰히트/그는 멸했다, 38절), **רָעַי**(아이르/그는 [분을] 쏟아냈다, 38절), **וְהוּא**(아무루후/그들은 그를 반역했다, 40절), **וְהוּא**(아아찌부후/그들은 그를 아프게 했다, 40절), **שָׁלַח**(에살랴/그는 보냈다, 45절), **גָּהַר**(아하로그/그는 죽였다, 47절), **שָׁלַח**(에살랴/그는 보냈다, 49절), **וְהוּא**(아크니우후/그들은 그를 진노케 했다, 58절), **מָה**(안햄/그는 인도했다, 72절). M. Dahood, *윳글*, 238-239쪽을 보라.

32) *윳글*, 238-239쪽.

33) H.-J. Kraus, *윳글*, 123쪽.

34) *윳글*, 124쪽.

한 변화를 겪으며 다듬어지고 확장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기에, 최종적으로 편집된 본문의 연대와 삶의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sup>35)</sup> 실제로 외스터레이(W. O. E. Oesterley)는 현재 시의 형태는 본래적으로 짧은 본문으로부터 여러 번의 첨가를 통해 확장된 것으로 이해한다.<sup>36)</sup> 게르스텐버거(E. S. Gerstenberger)도 시 78편은 고대 유대 공동체의 예배에 사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공동체들에 의해 취해져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예배에 사용되었다고 본다.<sup>37)</sup> 이러한 점에서 시 78편은 오랜 전승 과정의 최종적인 산물이고, 따라서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의 분석을 통해 연대와 삶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sup>38)</sup>

시 78편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와 시온 산과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위의 구조 분석에서 본 것처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최종 편집자/저자는 하나님의 역사/은혜(시 78: 12-16, 23-28, 38-39, 44-55)와 에브라임의 반역/불순종(시 78: 17-20, 29-30a, 40-43, 56-58)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을 시 78편 12-58절에서 연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에브라임의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와 시온 산과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을 위해 특별히 최종 편집자/저자는 9절을 삽입한 것처럼 보인다.<sup>39)</sup>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35) 왕 대일, “시편의 신학: 시네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제32집(2009년 6월), 20-24쪽을 참조하라.

36) W. O. E. Oesterley, *유타*, 359쪽.

37) E. S. Gerstenberger, *유타*, 98쪽. 함성국도 이 시편이 창작된 시기는 “다윗 시대에서 바빌론 포로기 이후” 사이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시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함 성국, 「시편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19쪽을 보라.

38) 터커(G. Tucker)와 크니림(R. Knierim)은 전승의 최종 단계에 형성된 본문이 단순한 전승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과 같은 유기적인 실체이기에 개정된 양식비평은 “삶의 자리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던 노력”에서 벗어나 “최종 형태의 본문을 생성시킨 문학적, 사회학적 정황을 묻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왕 대일, *유타*, 182-184를 보라.

39) 궁켈(*유타*, 343쪽)은 9절을 삽입으로 보고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것의 어색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אַפְרַיִם אֲפֵרַי(브네-에프라임)을 פְּרַעִי בְּנֵי פְרַעִי(바남 페루임/억제되지 않는 자손들)으로 바꾼다. 또한 F. Delitzsch, *Psalms*, vol. V. trans. J. Mart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364쪽; H.-J. Kraus, *유타*, 121쪽; C. A. Brigg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I (ICC), (Edinburgh: T. & T. Clark, 1976), 183쪽; A. A. Anderson, *유타*, 564쪽; J. Goldingay, *Psalms: Volume 2 Psalms 42-89*,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7), 487쪽을 보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한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에브라임 자손들의 조상들’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 78편 9절에 **יְהוָה יִגְדַּל**을 삽입함으로 12절에 나타나는 **אֲבוֹתָם**(아보탐)이 ‘그들의 선조들’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에브라임 자손들의 선조들’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절 이하에 언급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에브라임 선조들’로 한정된다. 게다가 시 78편 57절에 **אֲבוֹתָם**(카아보탐/그들의 선조들처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9절의 삽입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한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아니라 ‘에브라임 자손들의 선조들’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최종 편집자/저자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주체를 ‘에브라임 선조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최종 편집자/저자가 왜 이러한 내용과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렸음을 강조하는가? 왜 에브라임이 버려지고 대신 유다와 시온 산과 다윗이 선택된 것이 이 시에서 강조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에브라임의 버림과 유다와 다윗의 선택이라는 이 시의 핵심 내용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기원전 4세기 말 이후에 일어난 사마리아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의 합병화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대체사장 야두아(Jaadua)의 형제인 므낫세(Manasseh)가 다리우스 III세(기원전 335-330년)의 시대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Sanballat)의 딸 니카소(Nicaso)와 결혼했는데, 이 사건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므낫세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성전에서의 봉사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므낫세가 그의 추종자들과 세력으로 도망하여 그의 장인 산발랏이 세운 그리스 산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sup>40)</sup>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두 공동체 사이에 갈등은 심화되었고, 두 공동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sup>41)</sup>

40) 이것에 대한 요세푸스의 글을 위하여 Josephus, *Jewish Antiquities, Books IX-X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461-465쪽을 참조하라.  
 41) C. C. Torrey, *Ezra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0), 325쪽; J. D. Purvis,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Origin of the Samaritan Se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110쪽.

따라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마리아 공동체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합법적인 공동체인가를 논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들의 주장을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했을 것이며, 이 시는 그들의 주장을 위한 최고의 본문이 되었을 것이다.<sup>42)</sup> 왜냐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공동체의 근거지인 에브라임 지파와 실로의 성막을 버리고, 대신에 유다 지파와 시온 산과 다윗을 선택했다는 내용을 이 시편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오래 전에 완성된 시 78편이 최종 편집자/저자에 의해 기원전 4세기 말 이후에 새롭게 다듬어지고 변형되어 예배와 교육을 위한 본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sup>43)</sup> 따라서 이 시편의 연대와 삶의 자리를 기원전 4세기말 이후로 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sup>44)</sup>

이 연대는 또한 시편의 최종적인 편집 연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파이퍼(R. Pfeiffer)는 현재의 시가 수세기 동안 시들의 모음집으로부터 성장했는데, 이러한 성장 과정은 기원전 400년 이후에 시작되어 아마도 대략 기원전 100년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본다. 게다가 그는 대체로 시들은 포로 이후의 유대교 사상과 신앙과 예배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차 준희는 시의 최종 연대는 역대기의 형성과 예수 벤 시라(Jesus ben Sirach)의 시대에 위치한다고 본다. 그는 대상 16장과 집회서를 근거로 하여 역대기의 형성 연대가 시의 상한선(기원전 330-275년경)이며, 하한선(기원전 220-180년경)은 벤 시라의 작품 연대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sup>46)</sup> 김 정우는 오늘날에는 시편이 막카비와 하

42) 카를(윗글, 147쪽)은 이 시편의 삶의 자리를 확실하게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이 사마리아 공동체와의 직접적인 논쟁에 크게 공헌하는 기능을 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43) 윗글, 150쪽을 참조하라.

44) 궁켈(윗글, 342쪽)은 이 시편이 사마리아와의 논쟁과 관련 있다는 둘(B. Duhm)의 주장에 가능성이 있음을 9절과 연결 지어 말한다. 카킨스(윗글, 77-78쪽)는 이 시편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적대관계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앤더슨(윗글, 564쪽)도 이러한 연결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위해 H.-J. Kraus, 윗글, 123쪽; W. O. E. Oesterley, 윗글, 359쪽을 참조하라.

45) R. H. Pfeiff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8), 629쪽.

46) 차 준희, 「시편신앙과의 만남」(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1-33쪽.



스모니아 시대(기원전 165-104년)에 나온 것으로 여겼던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주장은 완전히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며, 시편의 최종 편집 연대가 막카비와 하스모니아 시대 이전임을 주장한다.<sup>47)</sup> 특별히 카롤(R. P. Carroll)은 “시편의 연대를 포로 이전으로 또는 포로 이후로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모든 책들이 포로 이후의 편집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sup>48)</sup>

따라서 시가 최종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시기는 대략 기원전 4세기 이후이며 막카비와 하스모니아 시대보다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볼 때 최종 형태의 본문인 시 78편의 연대와 삶의 자리를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 사이의 합법화 논쟁이 절정에 달했던 기원전 4-3세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sup>49)</sup>

#### 4) 본문의 의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은 교훈 시/지혜 시로 화자가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교훈을 위해 출애굽 전승과 광야 전승을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심코 읽는다면 출애굽 했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며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 있으니 순종하라는 목적을 위해 쓰인 것처럼 보인다.<sup>50)</sup> 그러나 위의 구조 분석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시편의 핵심은 59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비교법을 통해 실로와 에브라임의 버림과 유다와 시온 산과 다윗의 택함을 강조한다.<sup>51)</sup> 그리하여 이 시편의 의도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공동체이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합법적

47) 김 정우, *윗글*(2009), 85-86쪽.

48) R. P. Carroll, *윗글*, 144쪽.

49) 카롤은 이러한 논쟁이 있을 당시에 과거의 고대 전승들이 초기 유대교의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 재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윗글*, 147쪽.

50) 맥밀리온(P. McMillion,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Restoration Quarterly*, 43 [2001], 225-226쪽)은 이 시편 기자의 목적은 출애굽과 광야 사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51) 크노우레스(M. D. Knowles, “The Flexible Rhetoric of Retelling: The Choices of David in the Texts of the Psalms,” *CBQ* 67 [2005], 243쪽, 247쪽)는 다윗과 시온의 선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며, 또한 유다로 하여금 은혜의 하나님에게 충성을 계속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롭게 선택된 시온 공동체가 하나님  
의 진정한 공동체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원전 4세기말  
이후에 일어난 정통성의 문제를 위해, 특히 예루살렘 공동체의 정통성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78편이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 3. 결론

전체적으로 이 시에는 포로 시대 이후의 핵심 주제인 남은 자나 귀환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한 포로 시대 이후의 관심인 혼합 결혼이  
나 유다의 멸망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는 포로  
시대 이전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시  
들은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변형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공동체들에 의해 취해져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변형되  
어 예배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 78편은 초기에 완성되  
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변형되고 발전되어 현재  
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의 중심에는 아마도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라는 삶의 정황과 예루살렘 공  
동체만이 합법적임을 강조해야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시 78편을 잘 짜여진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 인식하고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속에서 텍스트의 철저한 구조 분석과 구문의 분석  
을 통해 종합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텍스트가 고정되기 이전의  
구전 단계와 본문의 소단위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양식 비평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개정된 양식 비평이 어떻게 최종 형태의 본문 해석에 적  
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4. 참고문헌

- 김 래용, 「에스라서 연구: 새로운 양식비평적 분석」 (서울: 황소와소나무, 2008).  
\_\_\_\_\_, “스 3장 1절 - 4장 5절의 양식비평적 분석,” 「구약논단」 제29집(2008년  
9월), 88-108쪽.  
김 이곤, 「시편 I (성서주석, 1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김 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_\_\_\_\_, 「시편주석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7).

- 왕 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5).
- , “시편의 신학: 시네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제32집(2009년 6월), 10-29쪽.
- 정 석규, 「구조로 읽는 구약성서: 구조분석 방법과 실제」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 차 준희, 「시편의 신앙과의 만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한 동구, 「신경향 히브리어 문법」 (서울: 도서출판 B&A, 2008).
- 함 성국, 「시편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Anderson, A. A., *Psalms (73-150)* (NCBC),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 Co., 1972).
- Briggs, C.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I (ICC), (Edinburgh: T. & T. Clark, 1976).
- Campbell, A. F., “Psalm 78: A Contribution to the Theology of Tenth Century Israel,” *CBQ* 41 (1979), 51-79쪽.
- Carroll, R. P., “Psalm LXXVIII: Vestiges of a Tribal Polemic,” *VT* 21 (1971), 133-150쪽.
- Clifford, R. J., “In Zion and David a New Beginning: An Interpretation of Psalm 78,” B. Halpern/J. D. Levenson(eds.), *Traditions in Transformation: Turning Points in Biblical Faith*,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1), 121-141쪽.
- Coggins, R. J., *Samaritans and Jews: The Origins of Samaritanism Reconsidered*,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 Dahood, M., *Psalms II: 51-100*(AB 17),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68).
- Day, J., “Pre-Deuteronomic Allusions to the Covenant in Hosea and Psalm LXXVIII,” *VT* 36 (1986), 1-12쪽.
- Delitzsch, F., *Psalms*, vol. V., trans. J. Mart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 Frisch A., “Ephraim and Treachery, Loyalty and (the House of) David: The Meaning of a Structural Parallel in Psalm 78,” *VT* 59 (2009), 190-198쪽.
-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FOTL XV),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 Goldingay, J., *Psalms: Volume 2 Psalms 42-89*,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7).
- Goulder, M. D., *The Psalms of Asaph and the Pentateuch: Studies in Psalter*, III (JSOTSup., 233), (Sheffield: JSOT Press, 1996).
- Gunkel, H., *Die Psalmen* (HKAT 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1926).
- Hiebert, P. S., "Psalm 78: Its Place in Israelite Literature and History," (T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92).
- Josephus, F., *Jewish Antiquities, Books IX-X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 Junker, H., "Die Entstehungszeit des Ps. 78 und des Deuteronomiums," *Biblica* 34 (1953), 487-500쪽.
- Knierim, R., "Old Testament Form Criticism Reconsidered," *Interpretation* 27 (1973), 433-468쪽.
- Knowles, M. D. "The Flexible Rhetoric of Retelling: The Choices of David in the Texts of the Psalms," *CBQ* 67 (2005), 236-249쪽.
- Kraus, H. -J., *Psalms 60-150*, trans. H.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1989).
- Leonard, J. M., "Identifying Inner-Biblical Allusions: Psalm 78 as a Test Case," *JBL* 127 (2008), 241-265쪽.
- Limburg, J., *Psalm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McCann, J. C., "The Book of Psalms," L. E. Keck et al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V,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985-993쪽.
- McLain, C. E., "An Investigation of Psalm 78 as Political Accession Justification for the Davidic Dynasty,"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6).
- McMillion, P.,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Restoration Quarterly* 43 (2001), 219-228쪽.
- Muilenburg, J.,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 (1969), 1-18쪽.
- Oesterley, W. O. E., *The Psalms*,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39).
- Pfeiffer, R. H.,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8).
- Purvis, J. D.,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Origin of the Samaritan Se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Seybold, K., *Introducing the Psalms*, trans. R. G. Dunphy, (Edinburgh: T & T Clark, 1990).
- Stern, P., "The Eighth Century Dating of Psalm 78 Re-argued," *HUCA* 66 (1995), 41-65쪽.
- Sweeney, M. A., "Form Criticism," S. McKenzie and S. Haynes (eds.),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 and Their Applic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58-89쪽.
- Tate, M. E., *Psalms 51-100*(WBC, 20),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Torrey, C. C., *Ezra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0).  
Weiser, A., *The Psalms* (OTL), trans. H. Hartwe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검색어

사마리아 공동체  
새로운 양식 비평  
시편 78편  
에브라임  
예루살렘 공동체

투고일: 2009년 8월 1일  
심사일: 2009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1일

---

## Form-Critical Analysis of Psalm 78: Structure, Genre, Setting, and Intention

---

Rae-Yong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four elements such as structure, genre, setting, and intention of Psalm 78 by utilizing recent form criticism which begins with an analysis of structure on the final texts. For this I investigated its structure and language, words and syntax, and its content with an idea of recent form criticism which explores texts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First, the structure of Psalm 78 is divided into three parts, introduction(vv. 1-8), God's grace and sins of the ancestors of Ephraim(vv. 9-58), and conclusion(vv. 59-72). In particular, the final editor/writer repeats two opposed ideas such as God's grace and sins of the ancestors of Ephraim in vv. 9-58 to emphasize that God did not choose the tribe of Ephraim but he chose the tribe of Judah, Mount Zion, and his servant David. In addition, he seems to have inserted v. 9 into the place between verses 8 and 10. In particular, בני־אפרים(the sons of Ephraim) in v. 9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dicating that those who rebelled against God in the wilderness after exodus are not all the

Israelites but the ancestors of Ephraim.

Second, Psalm 78 includes several genres such as wisdom, history, legend, hymn, and prophetic warning. Although the psalm have several genres, however, it begins with the form of wisdom poetry, and the speaker of the psalm says that his purpose is to give his instruction to his people (v. 1). Accordingly, the overarching genre of Psalm 78 is a wisdom poem, and the genres such as history, legend, hymn, prophetic warning belong to subordinate genres.

Third, it is difficult to decide the setting of Psalm 78, because the psalm includes many ancient traditions such as the exodus tradition, the wilderness tradition, the Zion tradition, and the David tradition. Furthermore, the psalm does not mention any specific date and setting. Nevertheless, Psalm 78 gives us a clue for deciding its date and setting as showing that God chose the tribe of Judah, Mount Zion, and his servant David but he did not choose the tribe of Ephraim. The election of the tribe of Judah, Mount Zion, and David is a main idea of Psalm 78. Accordingly, this accentuation can be related to a very heightened feud between the Jerusalem community and the Samaritan community which began after the marriage of Manasseh to Sanballat's daughter. In sum, its final form is the product of 4th or 3rd century redaction.

Fourth, in this contex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inal editor/writer wanted to emphasize that Jerusalem community is the only legitimate community.

In sum, investigation of these four elements by utilizing recent form criticism gives us deeper understanding of Psalm 78. Furthermore, it may show us the importance of the analysis of content and structure on final text, in that their thorough analysis provides a different setting and intention.

#### **Keywords**

Ephraim • (the) Jerusalem community • Psalm 78 • Recent form criticism  
(the) Samaritan community